

제 9 강 인용법 및 주와 참고문헌의 작성

- 목 차 -

1. 학문적 글쓰기와 인용
2. 인용의 형식과 용법
3. 표절
4. 주와 참고문헌
5. 연습문제
6. 정리하기

1. 학문적 글쓰기와 인용

1) 인용의 필요성

내가 하는 주장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주장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



인용의 문제!!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자기 글 속에 반영할 때
지켜야 할 원칙, 방법, 형식에 관한 문제다.

2) 인용의 윤리

- ❑ 자기가 실제로 읽고 **이해한 범위에서 인용**해야 한다.
- ❑ 타인의 글을 인용했으면, 반드시 **인용한 사실과 원문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 ❑ **원문을 왜곡**해서 또는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
- ❑ **재인용은 되도록 피하고**, 재인용을 했다면 재인용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3) 인용의 기능



다른 사람의 견해를 **비판**하고 나의 견해의
새로움이나 특수성을 보여주기 위한 인용

나의 견해를 지지해주는
증거 제시를 위한 인용

참 고

직접적인 연구 대상, 즉 **1차자료**의 인용
(예를 들어 서평의 경우 논의의 대상이 되는 책)

* 참고

‘나의 주장은 옳다. 전문가 X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식의 동어반복적 인용은 큰 의미가 없다.

‘나는 A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전문가 X에 의하면 B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용되는 주장이 나의 주장과 구별되면서도 이에 대한 근거가 되어야 한다.

2. 인용의 형식과 용법

1) 인용의 유형



2) 인용의 표시



직접인용, 간접인용 모두 다음의 것을 밝혀주어야 한다.
인용문이 누구에 의해 씌어진 것인지(필자 또는 저자)
어느 책(논문)에서 나온 것인지(출처)

본문에서 저자표시구절 ('막스 베버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또는 '막스 베버에 따르면...'라고한다.')을 사용하고, 주에서 출처를 명기해주어야 한다.

3) 직접 인용의 형식과 인용표시

* 직접 인용 : 다른 사람의 글의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



인용이 본문속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큰따옴표**로 표시

독립된 단락인 경우, 따옴표는 생략하지만, 본인의 글과 구별하기 위해 **문단 형식 및 글자 크기를 조절함**

직접인용은 **원문의 표현 자체가 중요할 때** 사용

기본적인 형식 보기

■ 기본적 형식

박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총독 통치하에서 일본인 기업가가 한국에 대규모로 투자한 결과 한국 경제는 일본 경제에 철저히 종속되었지만, 인도의 공업은 1940년대로 가까워질수록 국내의 분업 관련이 높아졌다.”¹⁾

1) 박섭, 『식민지의 경제 변동: 한국과 인도』,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1, p. 20.

박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총독 통치하에서 일본인 기업가가 한국에 대규모로 투자한 결과
한국 경제는 일본 경제에 철저히 종속되었지만, 인도의 공업은
1940년대로 가까워질수록 국내의 분업 관련이 높아졌다.¹⁾

1) 박섭, 『식민지의 경제 변동: 한국과 인도』,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1, p. 20.

■ 나아가 인용도입부에서 인용문의 의의와 맥락 혹은 인용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여주면 더욱 좋을 것이다.

박섭은 한국과 인도의 식민지 시대 경제 질서를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다.
(이하동일)

<주의 사항>

사람들은 그를 "우리 사회를 밝히는 등불같은 사람이다."고 말한다.(X)

사람들은 그를 "우리 사회를 밝히는 등불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한다.(O)

4) 간접 인용의 형식과 인용표시

- * 간접 인용 : 인용자가 원저자의 표현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그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기 나름의 말로 바꾸어서 인용하는 것

간접인용에서는 **따옴표가 사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용표시는 직접 인용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해주어야 한다.

간접인용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용된 부분인지 **경계를 분명히 표시**해 주어야 한다.

주에서는 출처를 명기하면서 참조라는 말을 덧붙여주는 것이 좋다.

기본적인 형식 보기

■ 기본적 형식

박섭에 따르면, 총독 체제에서 일본인 기업가의 대규모 투자는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에 철저히 종속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한다.1)

1) 박섭, 『식민지의 경제 변동: 한국과 인도』,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1, p. 20 참조.

 말을 바꾸지 않으면 역시 직접인용 표시를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

박섭에 따르면, “총독 통치하에서 일본인 기업가가 한국에 대규모로 투자한 결과 한국 경제는 일본 경제에 철저히 종속되었다.”고 한다.1)

1) 박섭, 『식민지의 경제 변동: 한국과 인도』,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1, p. 20.

<주의 사항>

사람들은, 그가 우리 사회를 밝히는 등불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한다.(X)

사람들은, 그가 우리 사회를 밝히는 등불같은 사람이라고 말한다.(O)

5)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의 관계와 용법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은 그 나름의 장단점이 있다!!

1. 필요에 따라 두 가지 방식을 고루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특히 1차 자료일 경우, 그 자료의 핵심적 부분에 대한 직접인용은 필수적이다.
3. 직접인용을 한 경우에도 간단한 내용 설명을 뒤에 붙여서 간접인용의 요소를 가미한다.

■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의 장점·단점

	장 점	단 점
직접인용	원저자의 말의 왜곡 없는 전달	과다한 인용의 경우 독자가 글을 읽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음
간접인용	글쓴이의 말 속에 통합됨으로써 글의 전체적 통일성과 흐름을 유지하는 데 적합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 원문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

6) 토론: 간접인용과 풀어쓰기



간접인용을 할 때는 어떤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한 다음 그 책을 덮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준다는 기분으로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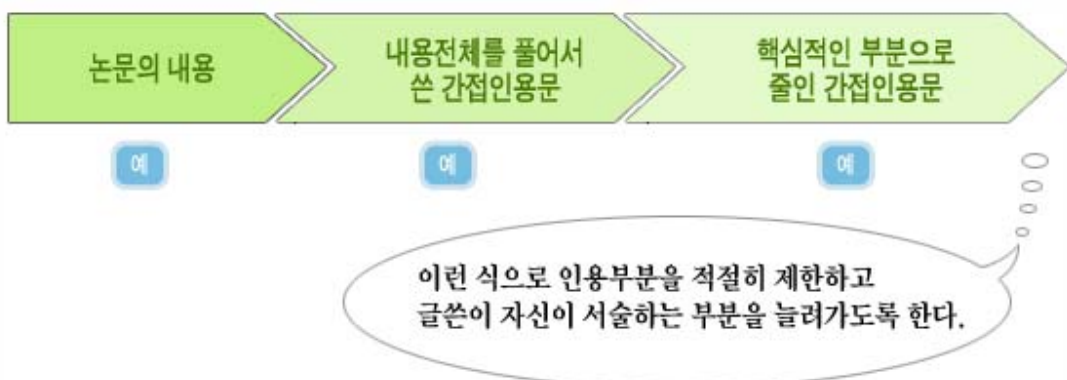
■ 간접인용 절차



풀어쓰기 연습

1. 글을 읽고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능력 향상
2. 어떤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 향상

■ 풀어쓰기를 통한 간접인용의 예



3. 표절

1) 표절의 정의



학문적인 의미에서 표절이란?

다른 저자의 노력이 들어간 학문적 성과를 마치
자기 자신의 것처럼 도용하는 행위

2) 내용의 표절과 문구의 표절

다른 저자의 독창적
주장이나 이론을
아무런 출처 표시 없이
마치 스스로 생각해낸
것처럼 제시하는 것

내용의 표절

문구의 표절

다른 저자의 글을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베껴 쓰는
행위

■ 표절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입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나 사실의 정리와 같은 정보 수준의 내용이라면 표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다만 이런 경우 제시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출처 표시를 해줌

→ 이 경우에도 문구를 그대로 베끼면 표절이다.

■ 간접인용과 표절

- 간접인용의 형식을 취했으나 원문의 표현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면 표절이 된다.
- 반드시 따옴표로 직접인용 표시를 할 것!

3) 표절의 유혹에 저항하는 법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때는
표절의 유혹에 강력하게 저항해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키워라

자기 수준에 맞는
주제와 문제를 설정하라

양에 구애받지 말라

▪ 글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을 때 표절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 평소 자기 나름의 생각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이디어를 키워라

자기 수준에 맞는
주제와 문제를 설정하라

양에 구애받지 말라

▪ 자기 수준을 넘어서는 주제에 관해 글을 쓰려고 할 때 표절의 유혹도 커진다.

▪ 주제에 관해 할 말이 없다 보니, 참고문헌의 내용으로 글을 채우게 된다.

☞ 자기가 분명히 이해하고 있고 말할 수 있는 주제와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아이디어를 키워라

자기 수준에 맞는
주제와 문제를 설정하라

양에 구애받지 말라

▪ 리포트의 양을 채우기 위해 자료를 그대로 베끼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

☞ 베낀 것이 적발되면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양보다 질에 신경 쓴다.

4. 주와 참고문헌

1) 주의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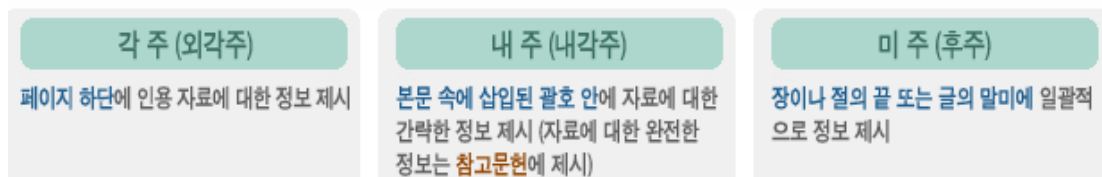


2) 주의 유형

1) 기능과 성격에 따라



2) 형태에 따라



3) 각주의 형식



★ 저서에 대한 주

박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총독 통치하에서 일본인 기업가가 한국에 대규모로 투자한 결과 한국 경제는 일본 경제에 철저히 종속되었지만, 인도의 공업은 1940 년대로 가까워질수록 국내의 분업 관련이 높아졌다.”¹⁾

1) 박섭, 『식민지의 경제 변동: 한국과 인도』,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1, p. 20.



▪ 문헌의 정보 제시 형식

클릭!!!

저자, 『책 제목』, 출판지 : 출판사, 출판 연도, 페이지 수

- 책제목에는 겹낫표(『』)를 사용한다. 때로 《》를 사용함
- 서양 문헌의 경우 책제목은 이탤릭체로 표시
예) John 'Berger', *Ways of seeing*, New york: Penguin Books, 1983
- 하나의 논문 안에서 형식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
- 한국에서는 대부분 서술이 출판지여서 변별적 기능이 약하므로 흔히 생략한다. (저자, 『책 제목』, 출판사, 출판 연도, 페이지 수)

* 논문에 대한 주

지명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청나라의 패배는 중국 내부에서 오래 지속돼온

천조체제(天朝體制)가 결정적으로 붕괴되는 것을 의미했다.”¹⁾

1) 지명관, 「전환기의 동아시아」, 정문길 외(편),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0, p. 23.



클릭!!!

- 저자, 「논문제목」, 편자이름, 『편저서 제목』, 출판지: 출판사, 출판 연도, 페이지 수
-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또는 잡지 제목』, 제O호, 발간 연도, 페이지 수

- 일반적으로 책제목은 겹낫표(『』) 논문제목은 홑낫표(「」)를 사용함
- 책 제목에 《》를 사용했을 경우 논문제목은 <>를 사용함
- 서양 문헌의 경우 책 제목은 이탤릭체로 표시하고 논문 제목은 “ ” 에 넣어주도록 함
(예: Herbert H. Clark, "Hearers and Speech Acts.", *Language* 58, 1982, p.332)

* 인터넷에서의 인용

듀나는 한 에세이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에드 기인의 살인이 80년대의

슬러셔 무비와 같았다면 크리스찬 사건은 완벽하게 구성된 에드워드 왕조 시대의 멜로드라마와 같았다.”¹⁾

1) 듀나, 「최고, 최악의 살인사건」, 『컬티즌』, 2002년 2월
(<http://www.cultizen.co.kr/content/?cid=1311>, 2003. 4. 30.)



- 문헌의 정보 제시 형식

클릭!!!

저자, 「논문제목」, 『웹사이트 혹은 웹진 제목』, 제O호 혹은 게재 연월 (웹사이트 주소, 인용 자료를 본 날짜)

- 신문·잡지 자료의 경우에도 형식은 동일하다.
예) 홍세화, 「비겁한 사회, 비겁한 정부」, 『한겨레 신문』, 2005년 12월 7일자
- 필자 명시가 필요치 않은 단순 기사의 경우 신문명과 날짜만 제시한다.
예) 『동아일보』, 2005년 10월 12일자
또는 《동아일보》, 2005년 10월 12일자

* 간접인용

지명관에 의하면 청나라의 패배로 인해 중국의 전통적 천조체제(天朝體制)가 결정적으로 붕괴하게 되었다고 한다. 1)

1) 지명관, 『전환기의 동아시아』, 정문길 외(편),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0, p.23 참조



- 간접인용은 표현을 자기 나름대로 바꾼 형태임
- 원문 그대로의 인용이 아니기 때문에 “참조”라는 말이 덧붙여짐

* 바로 위에서 인용한 문헌을 다시 인용한 경우

같은 페이지 일 때

1) Ibid.
상계서 (상계논문)
위의 책(위의 글)

페이지는 다를 때

1) Ibid., 페이지 수.
상계서 (상계논문), 페이지 수
위의 책(위의 글), 페이지 수

* 글의 앞에서 인용한 문헌을 다시 인용한 경우

- 1) 지명관, op. cit., 페이지 수.
- 지명관, 전계서(전계논문), 페이지 수.
- 지명관, 앞의 책(앞의 글), 페이지 수.



▪ 반복된 인용에서는 저자 이름과 글의 제목만을 적고 페이지수를 적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클릭!!!

지명관, 「전환기의 동아시아」, p.26

4) 내주의 형식

☐ **내주는 모든 경우에 거의 동일한 형식을 따른다.**

박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총독 통치하에서 일본인 기업가가 한국에 대규모로 투자한 결과 한국 경제는 일본 경제에 철저히 종속되었지만, 인도의 공업은 1940년대로 가까워질수록 국내의 분업 관련이 높아졌다.” (박섭, 2001, p.20.)



내주를 쓸 때는 인용 부분 말미에 괄호를 하고 **저자, 출판 연도, 페이지수**의 순으로 기재하며, 자료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참고문헌에 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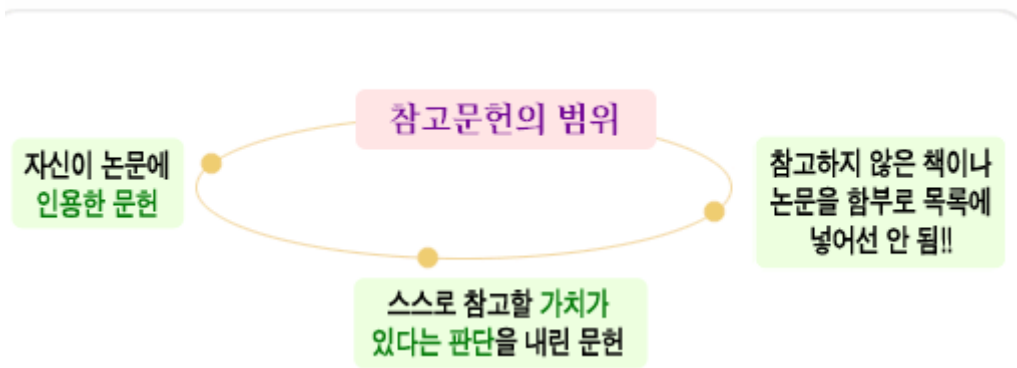
5) 참고문헌



글의 마지막 부분에 참고문헌의 목록을 제시함

● 참고문헌 의의

- ▶ 자신의 글이 어떤 문헌을 참고했음을 밝힘
- ▶ 해당 주제에 관해 더 알고 싶은 경우에 어떤 문헌을 참조할 수 있는지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



● 참고문헌 형식

▶ 각주와 참고문헌의 형식

- 이 경우는 각주의 형식에서 페이지수를 빼줘야 함
- 서양 문헌의 경우 : 저자이름을 '성과 심표(.) 이름'의 순으로 쓰고 성의 알파벳순(ABCD순)으로 배열
예) 이름(Adam Smith) ▷ (Smith, Adam)
- 한글 문헌의 경우 : 저자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열
- 편서나 학회지에 실린 논문 : 논문의 시작과 끝 페이지를 제시

클릭!!!

지명관, 『전환기의 동아시아』, 정문길 외(편),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0, pp.12~44.

Berger, John, *Ways of Seeing*, New York: Penguin Books, 1983

▶ 내주에서의 형식

- 참고문헌은 저자명 뒤에 발간 연도가 나옴
- 동일 저자가 같은 해에 발표한 논문이나 저서가 두 개 이상일 경우:
연도 다음에 a,b등의 기호를 넣어 구분해줌
예) 지명관(2000a), 지명관(2000b)

클릭!!!

지명관(2000) 『전환기의 동아시아』, 정문길 외(편),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서울: 문학과지성사, pp.12~44.

5. 연습문제

1) 다음 글을 읽고 자기 말로 풀어 써서 적절한 간접 인용문을 만들어보자.

제시 글

근대화론자는 계몽을 향한 열정에 휩쓸려 그것이 사회에 초래하는 문제들을 망각한다. 문맹을 뿌리뽑으려는 프로그램은 매우 폭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이 소수 지배집단 - 그들이 비록 근대화나 계몽을 이끄는 소수라 할지라도 - 의 권력에게는 위협이 된다. 문맹을 없애지 않는 한, 동질적인 사회도 근대적인 생산도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소비에트 러시아와 다른 많은 나라들의 역사에서 문화적 전환점, 즉 대중이 탈문맹으로 급속히 이행해가는 시대가 대대적인 탄압의 시기와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정부당국에게 위험한 것은 탈문맹 자체가 아니라 대중 교육의 폭발이다.

최근 역사가 이를 확인해준다. 특권 집단이 자본가이건 가부장적 주인이건 관료건, 진보건 보수건, 또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주장하던 자유 세계의 이상을 내세우든 간에, 그들이 처한 위험은 커졌다. 탄압 외에 다른 출구는 없었다. 교사 옆에는 언제나 경찰이 있었고, 때로는 교수형 집행인도 있었다. 문화적 전환점은 아직 전체주의적이지 않은 사회의 경우 전체주의의 위험이 극대화되는 시기이며, 전체주의 체제의 경우에는 탄압이 최악의 상태에 도달하는 시기이다.

(보리스 까갈리츠끼, 『근대화의 신기루』, 창작과비평사, 2000, p. 116.)

답안 예시

보리스 까갈리츠끼는 『근대화의 신기루』에서 근대화가 왜 정치적 억압과 밀접하게 연결되는지 설명한다. 근대화는 계몽, 즉 대중의 탈문맹을 요구한다. 근대적 생산이 이루어지려면 글을 읽을 줄 아는 노동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대중 교육의 폭발과 대중의 각성이라는 또 다른 결과를 낳는다. 이는 소수 지배 계급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지배 계급은 무자비한 탄압으로 이에 대응하게 된다.

까갈리츠끼는 이러한 주장을 소비에트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역사에서 탈문맹의 시기와 대대적인 탄압의 시기가 일치한다는 사실로 뒷받침하고 있다.

(보리스 까갈리츠끼, 『근대화의 신기루』, 창작과비평사, 2000, p. 116 참조).

해설) 관건은 계몽과 탈문맹의 역설을 파악하는 것. 탈문맹 프로그램은 근대화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그것이 지배 질서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를 들어 설명해야 한다.

6. 정리하기

● 주와 참고문헌 작성법에 관하여 참고할 수 있는 책들

1. 강진력(편), 『APA 논문작성법』, 서울: 양서원, 2001.
2. 계명대 논문작성법 편찬위원회(편), 『학술논문작성법』, 대구:계명대학교 출판부, 2003

■ 학문적 글쓰기에서는 나의 말과 남의 말을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

■ 인용에는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형식을 선택하여 인용한다.

■ 간접인용을 할 때는 나 자신의 말로 충분히 풀어 써야 한다.

■ 절대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표현을 자기 것처럼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인용 출처를 밝히는 형식으로는 크게 각주와 내주가 있으며, 한 편의 글에서는 하나의 방식을 일관되게 사용하여야 한다.